

한 학기 한 권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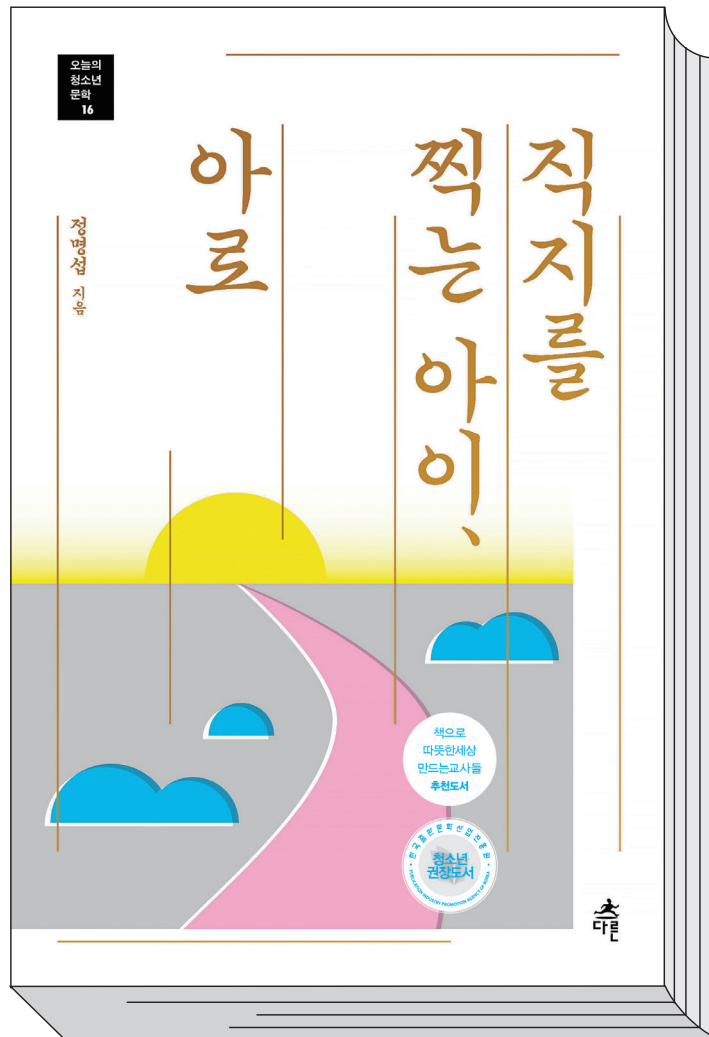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

작성

김영선 선생님(삼평중학교 교사)

오늘의 청소년 문학 16

정명섭 장편소설



주제어

#역사소설 #직지심체요절 #문화재 #금속활자 #인쇄술 #유네스코

분류

문학 > 한국문학 > 청소년소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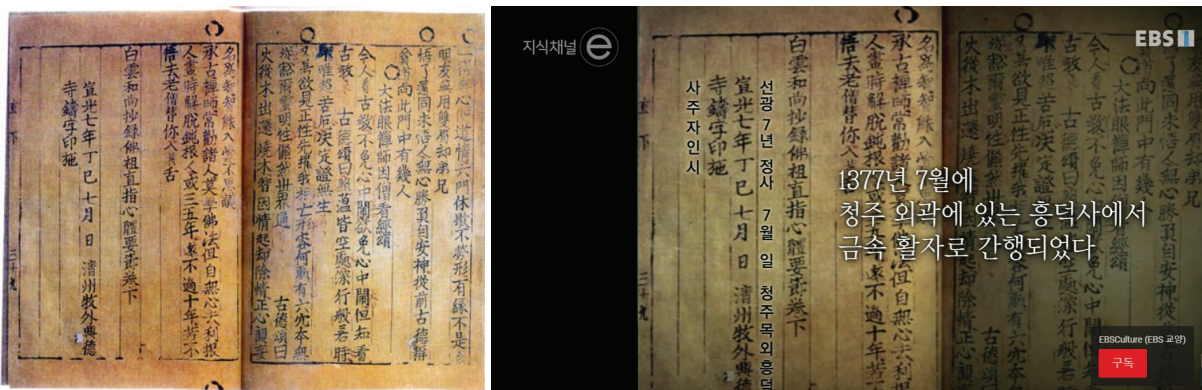
※이 지도안은 다른출판사 블로그(https://blog.naver.com/darun_pub)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1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
읽기 전: 어떤 책일지 상상해 보기	
학번:	이름:

1. 미국의 시사 잡지 <라이프>가 2000년대를 맞아 ‘지난 1000년 동안 있었던 사건 가운데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100대 사건’을 조사한 결과 1위가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 발명’이었습니다. 왜 금속활자의 발명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금속활자의 발명으로 책을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되자 인류는 고단한 필사 작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식과 정보의 대량 유통이 가능한 시대가 왔고, 종교개혁, 정치적 발전에 기여하였다. 정보의 대량 생산과 대중의 의식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인쇄술의 발명은 사람들에게 귀중한 재산을 남겨 주었고, 소수가 아닌 일반 대중의 지식 보편화를 통해 인류의 역사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2. 다음의 《직지》 즉 《직지심체요절》 인쇄본이 우리나라에 있지 않고 프랑스 국립 도서관 동양 문헌실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지》가 해외로 유출된 경위는 조선 시대 고종 때 프랑스 외교관인 콜랭 드 بل랑시(Collin de Plancy)가 수집해 간 장서에 포함되어 있던 것이 그 후 골동품 수집가였던 앙리 베베르(Henry Vever)에게 넘어갔으며 그가 1950년에 사망하자 유언에 따라 프랑스 국립 도서관으로 이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

3. 2번의 질문처럼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있는 《직지》를 국내에 널리 알린 사람은 누구이고, 그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박병선 박사의 노력. 프랑스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박병선 박사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면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이 책을 발견했다. 1972년 이 사실을 공개해서 《직지심체요절》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렸다. 그 밖에도 프랑스가 병인양요 때 약탈해 간 외규장각 도서들도 찾아내 국내에 반환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

4. 《직지》가 세계사에서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1337년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이용하여 직지를 찍은 것은 무려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일이었다.

2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
독서일지1: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			
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			

3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
독서일지2: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			
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			

4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
독서일지 3: 오늘 읽은 내용 정리하기	
학번:	이름:

책 깊이 읽기 Tip 책을 읽을 때 밑줄을 긋거나 포스트잇을 붙여 메모하고 질문을 적어 가며 읽어 보세요.

읽은 날짜	년 월 일	읽은 부분	쪽 ~ 쪽
질문은 나의 힘 (책을 읽으면서 생긴 질문)			
메모는 나의 힘 (날말 뜻, 줄거리, 더 알고 싶은 것 등 자유롭게 메모)			
필사는 나의 힘 (마음에 드는 문장과 그 이유)			

5~8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
읽은 후1: 질문으로 소설 깊이 이해하기	
학번:	이름:

1. 소설 전체 내용 정리하기

(1) 이 소설의 중심인물은 누구인가요?

(2) 중심인물의 갈등은 무엇인가요?

(3)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4) 등장인물의 삶에 대해 평가를 해본다면?

- 아로 :

- 우덕 대행수 :

- 묘덕 할멈 :

- 경한 스님 :

- 석찬 스님 :

- 옥진 :

- 혜천 상좌 스님 :

(5) 줄거리를 잡아 보면?

(6) 인물 관계도를 그려 보세요.

길우(십대 중반, 가름) -우덕 대행수 - 행수 오국침(으뜸 행수, 나이 지긋) - 묘덕 할멈 - 경한 스님- 석찬 스님- 아로(15살)-
옥진(홍덕사 아랫마을 절 일 도와줌) - 혜천 상좌 스님(탐욕)

(7) 이 소설에서 인상적인 장면을 스케치해 보세요.

(8) 이 소설을 읽고, 질문을 만들고, 답을 스스로 해보세요. (핵심적인 질문, 더 궁금한 내용 등)

질문 만들기	스스로 답해 보기	친구들 의견

2. 세부적 질문

(1) 청주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만들기 시작한 일이 목골 마을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년 전부터 고려가 만든 목판활자의 대부분은 목골 사람들이 도맡아 했음. 목골의 남자아이는 오직 목판활자 만드는 일만 배움. 농사를 짓거나 과거를 보는 일은 금지, 다른 일을 시키면 마을 밖으로 추방. 목판활자로 먹고사는 이들에게 금속활자의 개발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는데, 전통을 고수하고 마을의 명맥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목판인쇄를 포기 못 함.

(2) 아로가 목골마을의 골칫거리가 되고 반항적으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2년 전 아로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아버지가 살아 있다는 말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한 우덕 대행수와 행수들에 대한 미움 때문에.

(3) 우덕 대행수가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를 만드는 걸 막으려고 아로에게 내세운 조건은 무엇인가요?

아로의 아버지에 대해 알려 준다고 함. 아버지는 마을에서 금지된 일을 했기 때문. 아로의 아버지는 활자를 만드는 기술을 바깥 사람들에게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함.

(4) 우덕 대행수가 금속활자를 만드는 걸 없애려고 아로에게 부탁한 일은 무엇인가요?

금속활자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여 금속활자를 만드는 비밀을 알아내고, 배워 오라고 함.

(5) 경한 스님은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아로에게 금속활자 만드는 과정을 알려 줍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의심하는데 경한 스님은 왜 그랬을까요?

역적질을 하는 것도 아니어서 숨길 게 없다고 생각, 생각이 트인 분이어서.

(6) 경한 스님이 《직지심체요절》을 목판으로 찍지 않고, 금속활자로 찍으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책 한 권에 필요한 목판이 집을 꽉 채울 만큼이고, 보관을 조금만 잘못해도 금이 가거나 뒤틀려서 못 쓰게 되기 때문. 거기다 값 비싼 나무를 써야 하고, 판각수들을 여럿 고용하느라 비용이 많이 듦. 굵어 죽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책을 찍는 데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서 걱정이 많았는데, 시주를 하러 온 신도 한 명에게 금속활자로 인쇄를 하면 만들어 놓은 활자를 이용해서 다른 책을 찍어 낼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음.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이 목판보다 더 길고 어려워서 다들 엄두를 내지 못하지만 금속활자로 찍는 게 편하다는 걸 알리면 다들 뒤따라 하지 않을까 해서.

(7) 아로가 후대에 필요하다고 해서 경한 스님께서 굳이 고생하실 필요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경한 스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참선을 통해서 바른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과 같다는 내용이 직지심체요절에 담겨 있다. 모든 걸 버리고 수행의 길에 들어선 마음가짐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마땅히 금속활자로 찍어야 한다. 책이란 널리 읽혀야 하는 법, 금속활자는 보관도 쉽고 다시 찍어 내기도 수월하다. 길이 있다면 걸어야 한다.

(8) 경한 스님이 “참고 견디면 삶이 새로운 길을 알려 줄 테니까 말이다.”라고 말씀한 것은 아로에게 훗날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9) 아로가 묘덕 할머니께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속활자를 어떻게 만들고,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를 살펴봐야 해서. 마음은 편치 않음.

(10) 달잠 스님이 말한 판각수가 아로의 아버지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향이 목골이라고 하고, 책 만드는 과정을 잘 알고 있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음.

(11) 금속활자를 완성하는 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올수록 아로의 내적 갈등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대로 털어놓으려고 해도 차마 입을 열지 못함.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어서.

(12) 다음과 같이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 과정에 동참한 아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출처 : 청주고인쇄박물관

			
1. 글자본 선정	2. 자본 붙이기	3. 어미자 만들기	4. 밀랍가지 만들기
			
5. 주형 만들기	6. 쇠물 붓기	7. 완성된 주조 활자	8. 활자 다듬기
			
9. 조판	10. 인쇄		

자신에게 놓인 길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이런 복잡한 금속활자를 만드는 것에 열정적으로 임하는 경한 스님, 석찬 스님, 묘덕 할머니 등을 존경.

(13) 아로가 묘덕 할머니께 왜 사람들은 새로운 걸 두려워하는지 물었을 때, 할머니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금속활자를 예로 들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 일이 줄어들까 염려하고 변화 자체를 두려워해서 반대하기도 한다. 죄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아직도 여자들은 윗날과 아랫날 사이에 씨실을 끼우기 위해 허리를 굽혀야만 했을 거다. 새로운 세상은 늘 쉽게 오지 않는다. 씨실이 든 복의 예를 들.

(14) 석찬 스님이 금속활자 만드는 일에 열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신은 글을 읽지 못함. 스승님이 무슨 뜻으로 금속활자로 《직지심체요절》을 찍으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고, 스승님의 꿈이 자신의 꿈이기에.

(15) 아로가 자신의 아버지를 찾겠다는 일념에서 벗어나 생각이 바뀌게 된 것을 알게 해 준 사건은 무엇인가요?

밀랍을 구하러 석찬 스님과 같이 가서, 석찬 스님이 벌에 쏘여 고통을 받는 것을 보고 약을 구하러 다녀오는 길에, 타인과 후손을 위해 금속활자를 만들고 그걸로 책을 찍어 내겠다는 숭고함이 그의 마음을 녹인 것.

(16) 금속활자를 만드는 일에 참여하면서 아로가 더욱 혼란스러워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과 후대를 위해서 고생을 자처하는 경한 스님과 그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그러나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생각, 목판활자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혼란을 안겨 줌.

(17) 경한 스님이 쓰러지자 혜천 상좌 스님 무리가 금속활자 작업장을 파괴하려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주지 스님을 하려고/ 몇 년 동안 낭비한 물력, 주지라면 마땅히 승덕사를 위해 일을 해야 한다고/ 주지 스님이 될 줄 알았는데 덕이 부족하고 욕심이 많은 분이라 다른 상좌 스님들이 취암사에 계시던 경한 스님을 모셔 와서 원한을 품음.

(18)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을 옆에서 도우면서 아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요?

타인과 후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인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 옆에 같이 서고 싶었다고 옥진에게 말하고 싶었음. 활자를 만들기 위한 모든 과정을 배웠지만 무엇보다 그 어디에도 없던 따뜻함과 배려를 가슴 깊이 느낌.

(19) 혜천 스님이 주지 스님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운천산에 있는 금속활자 작업장의 문을 닫는 것.

(20) 종회에 나타난 묘덕 할머님이 경한 스님의 뜻대로 금속활자 만드는 일을 이어 달라 하자 혜천 스님이 결정 내린 일은 무엇인가요?

작업장을 놔두되, 흥덕사의 스님, 일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일은 금한다. 묘덕 할머님도 사찰 일에 간섭하지 마라.

(21) 묘덕 할머니가 금속활자를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금속활자로 불경을 많이 찍을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처럼 부처님의 뜻을 따를 것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될 것이기에.

(22) 아로의 가족 주머니에 들어있는 글자는 '길 로(路)'입니다. 이 글자의 의미를 아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괴로움과 두려움을 벗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뜻. 어머니를 잃은 분노, 아버지를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을 모두 벗어 버리는 길,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새로운 길을 가도록 만들었는지도 모른다.

(23) 청주 목사가 운천산 금속활자 만드는 곳에 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리가기 이전에 글을 읽는 학자로서 책에 관심이 많아서, 금속활자로 책을 만든다기에 궁금해서. 금속활자는 나라를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

(24) 금속활자를 다 만들고 《직지심체요절》을 찍는 묵은 아로의 묵이었습니다. 아로는 갈등이 있었는데, 경한 스님의 어떤 말이 결심을 하게 만들었나요?

길이 있다면 걸어야 할 뿐이지.

(25) 금속활자로 찍은 책의 완성이 다가오면서 아로가 다시 고민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향이 어떤 변화를 겪을지 걱정이 되었다. 사실대로 털어놓을지, 그들의 충격과 실망을 감당할 수 있을지 등.

(26) 오국첨 대행수가 흥덕사에 직접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로가 목골을 배신했다고 생각, 주지 스님을 만나서 책이 완성되는 것을 막아 주면 앞으로 이 절에서 만드는 모든 목판활자를 무료로 해주겠다고 설득하기 위함.

(27) 아로를 흥덕사에 보내며 우덕 대행수가 아로에게 귓속말로 한 말은 무엇이었나요?

어차피 시대의 흐름이 금속활자로 넘어간다면 목판활자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흥덕사로 가서 금속활자를 배워서 적당한 때에 정체를 밝히고 목골에서도 금속활자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8) 아로가 오국첨 대행수 등 목골 사람들을 설득할 때 한 말은 무엇인가요?

“금속활자를 무조건 배척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29) 아로가 쓰러져 있는 동안 오국첨 대행수와 스님들이 서로 협의한 것은 무엇인가요?

스님들이 목골 사람들에게 금속활자를 가르쳐 준다. 금속활자로 찍으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난다. 독점은 안 된다.

(30) 아로라는 이름의 끝자인 ‘로’가 달린 목걸이를 보고 청주 목사가 아로의 아버지임이 밝혀집니다. 아버지가 마을을 떠나게 된 이유와 아로를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로 아버지의 글솜씨를 아까워한 우덕 대행수가 금기를 깨고 아로 아버지를 마을 밖으로 내보냄. 아로 아버지는 개경으로 가서 글공부를 하여 과거에 합격했고 관리가 되었음. 아로 아버지가 과거를 보는 것이 알려지면 아로와 아로 어머니도 목골에서 쫓겨 나야 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음. 목골을 떠날 때는 혼자 몸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이라 아로 아버지 혼자 나옴. 아로 어머니가 죽고 나서는 목골에 가 보고 싶었지만 아로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 여긴 우덕 대행수가 극력 반대하였음.

(31) 아로는 개경으로 떠나는 아버지를 왜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9~10차시	한 학기 한 권 읽기 - 《직지를 찍는 아이, 아로》
읽은 후2: 토론하기, 다른 글과 엮어 읽기	
학번:	이름:

1. 이 소설에 드러난 다양한 갈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갈등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살펴보세요.

(1) 아로의 내적 갈등은 무엇이고, 그것을 아로는 어떻게 해결하였나요?

내적 갈등의 이유	갈등 해결 방법
<p>목판 사업을 독점하고 있던 목골의 수입은 줄어 생계를 위협할 것이다.</p> <p>vs</p> <p>금속활자를 만들게 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될 것이고, 인쇄 과정도 더욱 간편해질 것이다.</p>	<p>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고민을 거듭함. 또한 경한 스님, 묘덕 할머니, 석찬 스님 등 주변인들이 아로의 정신적인 성숙을 도움.</p>

(2) 아로를 둘러싼 외적 갈등(인물과 세계와의 갈등)은 무엇이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외적 갈등의 이유(인물과 세계와의 갈등)	해결 방법
<p>목판활자를 계속 유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목골 마을 사람들(아로 포함) vs</p> <p>금속활자를 새롭게 개발하여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세상의 변화?</p>	<p>아로가 금속활자를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해 보고, 금속활자의 좋은 점을 목골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장기적으로 목골 사람들에게도 더 좋음을 설득함.</p>

(3) 흥덕사 내 인물과 인물 사이의 외적 갈등 즉 석찬 스님, 묘덕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금속활자를 만들겠다는 사람들과 혜천 상좌 스님을 중심으로 한 금속활자 만드는 것을 중단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의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갈등은 어떻게 해결되었나요?

외적 갈등의 이유(인물과 인물과의 갈등)	해결 방법
금속활자 인쇄본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적 깨달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마음(석찬, 묘덕) vs 흥덕사의 자금을 금속활자 만드는 것에 쓰는 것은 흥덕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혜천 상좌 스님 등)	절의 설립자인 묘덕 할머니가 나서서 경한 스님의 뜻을 강조하자, 혜천 상좌 스님이 절의 돈을 쓰지 않고 인력을 쓰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속활자를 만드는 것을 인정함.

2. 옛날에는 직업을 선택할 자유가 크게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 상황에서 목골 사람들만은 목판 활자를 만드는 일을 독점했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하는 일에 대해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찬반 토론을 해보세요.

* 토론 주제 : 마을을 위해 목판 인쇄술을 고수하는 것이 옳은가.

근거	마을을 위해 목판 인쇄술을 고수하는 것이 옳다. (찬성)	마을을 위해 목판 인쇄술을 고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 (반대)
근거1	예시 이 시대는 직업을 맘대로 선택할 수 없다. 직업을 잃으면 생계가 위험하다.	예시 금속활자 인쇄라는 신기술과 새로운 수요자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근거2		예시 두려움을 이겨 내고 금속활자를 받아들여야 인쇄술이 한 발짝 발전할 수 있다.
근거3		

3. 다음은 철학자 김형석 선생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경한 스님이 평소 하시는 말씀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소유하려고 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더불어 함께 얻고자 하면 남는다.”

“더 많이 주는 것이 내 인생을 완성하는 길이다.”

- 철학자, 김형석 선생님의 말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여럿이 나누면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4. 《직지심체요절》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인쇄본이 현존하는 최초의 금속활자라는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박병선 박사는 어떻게 노력하였나요? 박병선 박사가 더 해낸 일은 무엇인가요? 박병선 박사와 관련한 동영상 지식 채널을 시청한 후 발표해 보세요.

[참고 자료] 지식채널e- 파란 책 속에 묻혀 있는 여성 : <https://www.youtube.com/watch?v=hi3kDy3KWx4>

박병선 박사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를 졸업한 후 1955년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간다. 한국 여성 최초로 프랑스 유학 비자를 받아 책임감이 컸다. 병인양요 때 프랑스에게 뺏긴 외규장각 의궤를 찾아 조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꿈을 품고 비행기를 탔다고 한다. 1972년 프랑스 도서관에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도서의 해'(1972년)에 맞춰 박병선 박사에게 동양 서적을 전시하는 일을 맡긴다. 어느 날 중국 서적에 섞여 방치되어 있는 《직지》를 발견한다.

박병선은 직지에 쓰인 “1377년 7월에 청주 외곽에 있는 흥덕사에서 금속 활자로 간행되었다.”라는 말을 근거로 프랑스 국립 도서관에 보고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신뢰할 수 없다고 한다. 박사는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실험을 통해 금속활자 만드는 실험을 통해 5년 후 이를 증명해 낸다. 또한 외규장각 의궤 297권을 찾아냈는데도 반환에 대해 국가가 관심을 두지 않자, 13년간 홀로 의궤를 연구하여 번역한다. 드디어 의궤 반환 운동이 펼쳐지고 2011년 4월 의궤가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

5. 다음 시와 이 소설을 연관 지어 감상해 보세요.

<p>봄길 정호승</p> <p>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 <u>스스로 봄길이 되어</u> <u>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u></p> <p>㉡ <u>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u> <u>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u> <u>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u></p> <p>보라 사랑이 끝난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 있는 사람이 있다 ㉢ <u>스스로 사랑이 되어</u> <u>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u></p>	<p>1. 밑줄 친 ㉠과 같은 인물은 이 소설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한 스님, 묘덕 할멈, 석천 스님, 후반부의 아로.</p> <p>2. 밑줄 친 ㉡과 같은 상황은 이 소설에서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하나요? 혜천 상좌 스님 등이 금속활자 만드는 일에 반대하고, 경한 스님이 의식을 잃고, 묘덕 할머니도 돌아가시는 등 금속 활자를 만드는 데 역경이 닥친 상황.</p> <p>3. 밑줄 친 ㉢에 나오는 시구 ‘스스로 사랑이 되어’는 이 소설에 나온 어떤 인물에 해당되고, 그 인물의 어떤 삶의 태도와 연관 지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경한 스님이나 묘덕 할머니 같은 인물이 이에 해당하고, 세상과 사람들을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여 그러한 일에 길을 만드는 개척자로서 삶의 태도와 연관 지을 수 있음.</p> <p>4. 이 소설의 아로는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결국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작정 새로운 것과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아로처럼 먼저 그것들을 배워 보고 알아보고, 그것을 활용하여 나와 많은 사람에게 이롭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것.</p> <p>5. 경한 스님의 ‘길이 있다면 걸어야 할 뿐이지’라는 말을 아로는 혼란스러울 때마다 떠올립니다. 경한 스님의 ‘길’과 이 시의 ‘봄길’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공통점 : 쉽지 않은 ‘길’이지만 길을 개척하면 의미 있고 아름답고 좋은 길이라는 점</p> <p>6. 5번의 질문처럼 아로가 스스로의 ‘길’을 찾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p>
--	--